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서 '한승헌 도서관' 개관

민주주의 · 인권 · 정의의 정신 있다

‘한승헌 도서관’이 11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개관했다. 이날 전북대에 따르면 고인 유가족과 양오봉 총장, 김관영 도지사, 산민한승헌선생기념회, 산민포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열었다. 한승헌 도서관은 시대정신을 배우고, 토론하며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열린 인문공간으로 조성됐다.

이날 개관 기념강연에서 김선수 전 대법관이 ‘한승헌 변호사와 함께한 사법개혁’을, 유시춘 EBS 이사장이 ‘한승헌 변호사와 함께한 인권운동’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어진 개관식은 내빈소개와 경과보고, 양오봉 총장의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양 총장은 “한승헌 도서관은 우리 사회가 잊지 말아야 할 가치들을 품은 공간으로 민주주의와 정의, 인권의 정신을 후대에 전하는 산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며 “전북대 구성원 모두가 이곳에서 고인의 뜻을 배우



11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승헌 도서관’ 개관식이 열린 가운데, 고 한승헌 변호사 유가족들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故 한승헌 변호사 업적 기려... 열린 인문공간으로
고인 유가족이 전북대에 발전기금 기부하면서 추진

고 일천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도서관 개관은 고 한승헌 변호사의 유가족이 전북대에 발전기금 1억원을 기부하면서 추진됐다. 여기에 국립대학육성사업 등의 예산을

더해 총 6억2,000만원 규모로 조성됐다. ‘한승헌 도서관’은故 한 변호사가 남긴 기록과 정신을 모교에 아로새긴 공간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상징적 장소로 기획됐다. 연면적 378㎡(약 114평) 규모로 100~150명이 함께 학습과 토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열린 복합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유가족은 “한승헌 도서관이 미래 세대에게 정의로운 지성과 따뜻한 양심을 키우는 공간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고인의 정신이 젊은 세대의 가슴 속에 살아 숨 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故 한승헌 변호사는 진안 출생으로, 전북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통학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사건 등 수많은 시국사건을 맡아 약자와 정의를 위한 변론에 평생을 바쳤다.

/장은성 기자



제13회 전국 이종언어 말하기대회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전북학생 3명, 전국 이종언어 말하기대회 수상

교육부장관상 1명 · 특별상 2명

‘제13회 전국 이종언어 말하기대회’ 참가 학생 3명이 교육부장관상 및 특별상을 수상했다.

1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대회는 다문화 학생의 이종언어 지일 및 강점 개발을 위해 2013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9월 지역 예선을 거쳐 전국 이종언어 말하기대회 참가 학생을 선발했다.

먼저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군산월명초 박재희 학생은 ‘넘어져도 다시, 인라인처럼’이라는 주제에 대해 한국어와 중국어로 발표했다.

이어 특별상 수상자인 강호항공고 서다은 학생은 ‘음악을 넘어 세계로 K-POP 이야기’라는 주제를 한국어와 필리핀어로, 역시 특별상 수상자인 고산고 구나은 학생은 ‘나를 찾아가는 길’이라는 주제를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각각 발표했다.

/장은성 기자

연말까지 공직기강 특별점검

전북교육청, 도내 교육행정기관 및 공·사립학교 대상

법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 연계...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월 31일까지 도내 교육행정기관 및 공·사립 학교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다시 뛰는 공직사회 △성과를 내는 공직사회 △일하고 싶은 공직사회 △깨끗하고 기본에 충실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표로 기획됐다.

중점 점검사항은 △주요 정책 이행 여부 △재난·사고 등 비상상황 대비 대응체계 점검 △교육시설 안전 관리 실태 △민원 처리 실태 △복무·보안 관리·공직자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갑질 근절 등의 교육 여부와 행

동강령 및 이해충돌방지제도 이행 실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자체 운영 중인 공직비리 익명 제보시스템, 국민신문고, 청렴포털 등과 연계해 교육현장의 갑질, 예산 비리, 복무 해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 공직기강 해이 또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후철 감사관은 “공직사회 근무 분위기 일신을 위해 점검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며 “점검을 통해 드러난 공직자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분을 내려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중학교 2022 개정 교과교육과정 연수... 18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8일까지 전주비전대학교 행복기숙사 세미나실에서 ‘중학교 2022 개정 교과교육과정 연수’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내 중학교 교과 교사 2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2022 개정 교과과정 적용에 따른 총론 및 교과교육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교과 교사의 교과과정 이해력을 높여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선제적 대응 및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에 초점을 맞췄다.

연수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 교사 각각 50여 명씩 총 250여 명이 참여한다.

이는 교과별 맞춤 연수로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교과 역량 △성취기준 연계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개선까지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특히 각 교과의 교육과정 각론을 통해 성취기준을 분석하고, 수업 적용 및 과정 중심 평가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수업·평가 방향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수병원, RISE
휴먼라이프케어 인재양성 맞손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 10일 본관 회의실에서 수병원(병원장 이병호)과 ‘RISE 휴먼라이프케어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주력 분야인 ‘휴먼라이프케어 인재양성’의 실질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산학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교양화 및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통합돌봄 역량 중심의 간호교육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실무형 캡스톤디자인 △산학공동연구 △의료현장 기술자문 △재직자 직무교육 △출생생 취업 연계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수병원은 간호학부 인재육성 장학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

/장은성 기자



수능시험 문답지 옮기고 있는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이 11일 전주시험지구에 도착한 2026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 문답지를 옮기고 있다.

/장은성 기자

지역산업 수요 맞춘 인재 양성 · 청년 정주기반 마련

JST공유대학,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과 협약

JST공유대학(본부장 최진하)이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JVADA)와 손잡고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양 기관은 11일 전주대장간 3층 교육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인재양성과 청년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산학 연계 교육 및 현장실습 운영 △창년 채용·인턴십 지원 △기업 맞춤형 고

용서비스 △공동 연구 및 정책 제안 등 산학협력 강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진하 본부장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산업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윤미영 사무국장은 “지속 가능한 지역 청년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학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장은성 기자



JBNU 개발협력 릴레이 세미나 ‘인디코드’ 3주년

이달 한달간 총 5회 강연... 농업 · AI 등 ODA 전문가들 한자리에

전북대학교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센터장 박숙희)와 국제개발협력원, 국제학부가 공동 운영하는 JBNU 개발협력 릴레이 세미나 ‘인디코드(INDECODE)’가 3주년을 맞아 11월 한달간 총 5회의 세미나를 마련했다.

인디코드는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Delights’의 약자로, ‘개발 협력을 통해 누군가의 기쁨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에서는 농업과 건축, AI, 소셜벤처, 지방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

서 국제개발협력의 최신 동향과 사례를 다룬다.

지난 5일 제28차 세미나에서는 전북테크노파크 김인봉 선임연구원이 ‘농기계 ODA사업과 글로벌 교두보: 한국농기계 수출의 새로운 길’을 주제로 농업 분야 ODA의 전략과 한국의 역할을 조명했다. 12일에는 유일엔지니어링 김정욱 전무가 ‘ODA 사업에서의 건축 진행: 캄보디아 국립소아병원을 중심으로’를 통해 인프라 구축 관점의 ODA 추진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13일에는 충북대학교 김태경 교수가

‘개발협력 x AI: 현장 적용에서 구축까지’를 주제로 캄보디아 IBS 사업 경험을 공유하며 첨단기술과 개발협력의 융합 방안을 논의하고, 19일에는 티에이비 오환중 대표가 ‘소셜벤처와 임팩트: 개도국 식수 위생 문제의 지속가능한 해결 사례’를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26일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신민정 팀장이 ‘지방에서 세계로: 작은 경원이 국제협력과 ODA 커리어로 이어지는 길’을 통해 지역 인재가 ODA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경로와 비전을 제시한다.

한편, 인디코드 세미나는 누구나 현장 참석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온라인에서 현장으로, 다시 교실로

고산초 국제교류수업 선순환 ‘눈길’

인도네시아 보소와 비나 인사니 초교 방문단 초청 국제교류

고산초등학교(교장 이미숙)는 11~13일 인도네시아 보소와 비나 인사니(Bosowa Bina Insani) 초등학교 방문단을 초청, 두 번째 국제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고산초 6학년 학생들은 자카르타·보고르·반둥 지역을 방문해 인도네시아 학생들과 댕그로브 보호 활동, 공동수업, 문화공연 등을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11월 첫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이 고산초에서 마련한 환영식을 비롯해 전교생이 참여하는 진로체험 부스 활동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한국 그림책을 활용한 공동수업 △인도네시아 바틱 문화 특강 △태권무와 인도네시아 전통춤 공연 등 ‘미래존·드림존·희망존’으로 구성된 17개 진로체험 부스에서 협동

과 도전을 경험했다. 또 고산초 양육자회가 마련한 ‘한국 음식문화 체험(김밥 만들기·전 부치기)’ 등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이어 12일과 13일에는 국제교류수업과 연계한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제교류수업을 담당하는 이창근 교사는 “지난 9월 진짜 친구가 된 우리 아이들이 두 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됐다”며 “이번 방문은 관계를 이어가는 교육이기에 더욱 의미 있다”고 전했다.

이미숙 교장은 “고산초 학생들이 배움의 경계를 넘어 세계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교류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배우는 진정한 세계시민 교육의 장이며, 국제교류수업 학교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